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
‘10년 12월 16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산업피해조사팀장 정승희, 황중연 사무관(02-2110-4953)
덤핑조사팀장 김진선, 최병달 사무관(02-2110-4961)

무역위원회, 『말레이시아産 합판』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

- 업체별로 5.12~38.10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: 현정택)는 ‘10.12.15(수), 제285차 회의를 개최하여, **말레이시아산 합판**에 대해 향후 **3년간 5.12~38.10%의 덤핑방지관세**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.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‘10.12.15(수) 무역위원회는 **말레이시아산 합판**에 대해 **향후 3년간 공급업체별로 5.12~38.10%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**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.

- 말레이시아 **공급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**을 보면 신양 5사 9.75%, 수브르티아사 5.12%, 자야티아사 6.43%, 화센 6.43%, 시노라 38.10%, 기타 공급자 8.76% 등이다.

* **합판**은 원목의 단판을 여러 장 겹쳐 만든 것으로 주로 **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**으로 사용되며 **마루판 등의 건축자재** 등에도 폭넓게 사용됨. 수입품은 국내에서 중소 건자재 유통상 등을 거쳐 최종 수요자인 소규모 건축업자에게 공급됨.

○ 이번 결정은 **'10.2.1일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**가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**반덤핑조사를 신청**한데 따른 것으로

- 무역위원회는 **'10.2.24일 조사개시**후 그간 10개월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, 이번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**국내산업이 시장을 상실**하는 등 **실질적 피해**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였다.

* (사)합판보드협회 회원사 : 성창기업, 이건산업, 선창산업 등

○ 국내 합판의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**약 7천억원**이며, 이중 **말레이시아산 수입품이 30%정도**(국산품은 35%정도)를 차지한다.

-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 90여개의 합판 생산업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5개업체(성창기업, 선창산업, 이건산업, 신광산업, 동일산업 등)에 불과한 실정이다.

○ 동 조치가 시행되면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업체들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첨부 :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참고자료

< 붙임 >

『말레이시아산 합판』 반덤핑 조사 참고자료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(사)한국합판보드협회*

* 회원사 : 성창기업(주), 선창산업(주), 이건산업(주), 동일산업(주) 등

○ 조사대상업체 : 말레이시아 신양(Shin Yang) 社 등

○ 조사대상물품

- 정의 :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방향이 직교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, 두께 6mm 이상인 후판(厚板) 제품

- 관세분류 : HSK 4412.31.4000, 4412.31.5000 등

- 용도 :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며 그 외에 마루판 등 건축자재로 사용됨

□ 조사 경과

○ 조사개시 결정('10.2월) → 예비판정('10.7월) →공청회('10.11월) → **최종판정('10.12월)**→ 반덤핑관세부과 등 조치(기획재정부, 예정)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성창기업(주), 선창산업(주), 이건산업(주), 신광산업(주), 동일산업(주) 등 5개사

○ 수요자 : 주로 지역단위의 중소 건자재 유통상이며, 합판은 이들을 통해 소규모 건축업자(최종 수요자)에게 공급됨

○ 국내시장규모('09): 약 7천억원(국산품이 30~40% 점유)